

부산, 국제금융도시 평가 역대 최고 기록

지엔 컨설팅그룹 GFCI 119곳 중 24위|전년보다 14점 오르며 한 계단 상승해|금융 생태계 조성 등 투자 결실 분석도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입력 : 2025-03-21 10:27:28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지엔 컨설팅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글로벌 119개 금융도시 중 24위를 차지하며, 728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평가 대비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점수 역시 14점 높아졌다.

특히, 부산은 '핀테크(금융기술) 지수'에서도 115개 도시 중 23위로 뛰어오르며 3계단 상승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도쿄 등에 이어 9위다. 이러한 성과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을 추진하는 부산의 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의 금융 경쟁력 강화 배경에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부산은 정부로부터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금융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동시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의 양대 축으로 성장시키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를 조성, 지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핀테크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분야의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금융기회발전 특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2030년까지 GFCI에서 글로벌 20위, 아시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GFCI 평가에서 1위는 뉴욕이 차지했으며, 런던이 2위, 싱가포르가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이 4위, 샌프란시스코가 5위에 올랐다.
